



치과 공포증 없애주는 '소아 진정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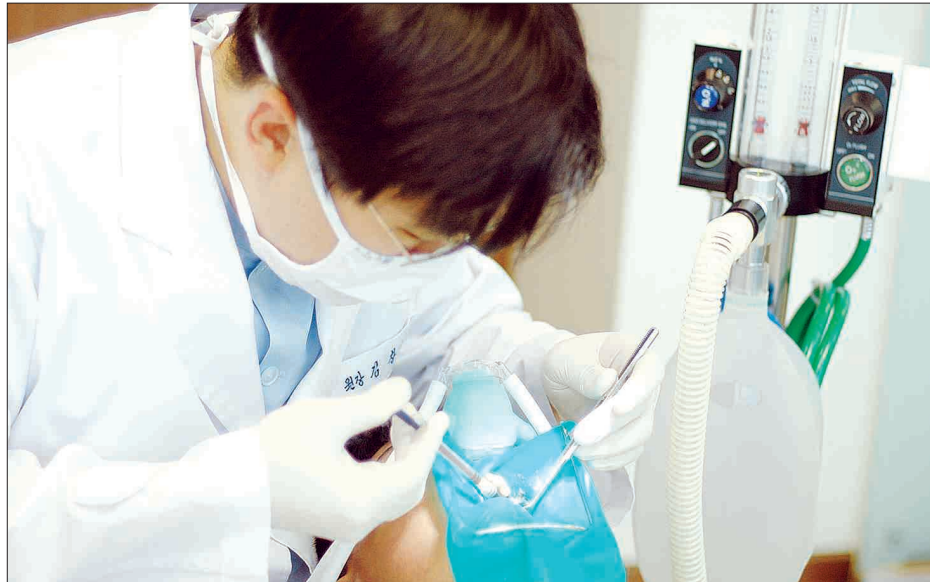
'웃음가스'마시면 어느새 "치료 끝"

이모(여·37·광주시 서구 금호동)씨는 치과병원 근처에만 가면 거의 '발작'을 일으키는 딸 김모(7)양 때문에 골치거리였다. 그런데 며칠 전 방문했던 치과는 달랐다. 소아(小兒)치과 전문의가 아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진정 치료'를 통해 아이가 가볍게 잠든 것 같은 상태에서 조용히 치료를 마쳤다.

진정제·아산화질소로 수면 유도 치료 전 음식물 섭취는 자제해야

◇소아, 충치 많고 진료시간 길어=어린 아이들의 유치(乳齒·젖니)는 영구치에 비해 석회화 정도가 약하기 때문에 섭취하는 음식물과 식습관에 따라 충치에 이환될 확률이 높다. 특히 충치가 생겼을 경우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다. 또한, 잘못된 수유 습관과 식이 환경 등으로 인해 충치가 1~2개에 그치지 않고 많은 치아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진정 상태' 치료법이다. 마치 과음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와 다르게 몸이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몽롱한 상태가 '의식하진정'이다. 치과에서의 '진정 치료'는 진정제를 먹이고 진정 가스인 'N₂O(아산화질소)'를 적절하게 환자에게 흡입시켜 '의식하진정'을 유도한 뒤 치료를 시행한다. 이 상태에서의 어린 환자들의 의식은 완전하며 모든 자연적인 반사 또한 유지되기 때문에 완전한 의식이 없는 상태인 '전신마취'와는 전혀 다른 방식이다.



서정치과 김창기 소아치과원장이 4일 아산화질소(N₂O) 가스를 이용한 마취를 통해 소아 환자의 치아 진료를 하고 있다.

소는 쉽게 들이마실 수 있으며, 약간 달콤한 냄새를 지닌 무색의 불활성 기체로서 공기보다 약간 무겁다. 일명 '웃음가스'라고 하는 이 기체는 의식 수준은 유지된 상태에서 공중에 뜬 느낌, 손발이 간지럽고 무거운 느낌과 즐거운 기분이 들어 어린 환자들의 공포심을 없애준다. 아산화질소는 체내에서 분해되지 않고 폐를 통해 다시 배출돼 일반적인 마취 방법보다 훨씬 안전한 편이다.

정한다. 그러나 치과에서 '진정 치료'에 사용하는 약물이나 '진정 가스'는 중독성이나 기역력 감퇴, 학습능력의 저하를 초래하지 않는다. 배출이 빠를 뿐 아니라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치료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서정치과 김창기 소아치과 원장은 "진정 치료"는 일반적인 치료 과정에 비해 단기간에 해야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조금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행동 조절 등이 쉽지 않은 어린이의 경우 구강 내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뿐 아니라 치료에 따른 공포감을 제거, 정신 건강에도 좋아 오히려 득이 많다"고 조언했다.

"자연 물질로 암 근원 치료" 화순 동면에 '라이프크리닉' 개원

'자연치유법'을 통해 암 환자를 치료하는 신개념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인 '라이프크리닉'(원장 박민호)이 지난 2일 화순군 동면에 문을 열고 진료를 시작했다. 4일 '라이프크리닉'에 따르면 기존 암 환자에 대한 약물·수술·방사선 등 현대 의학의 치료방법을 최소화하고 천연 자연물질을 이용, 암을 근원적으로 치료한다는 것. 600여 평의 면적에 2층 건물 3개 동으로 이뤄진 이 병원은 "미슬토 면역요법실 ▲냉·온욕과 반신욕을 통한 '수(水)치료실' ▲인도 정통 민

속의학학을 다루는 '아유베다 마사지실' ▲에너지 치료법을 도입한 '에너지 치료실' ▲병상 치료실 등 색다른 치료실을 설치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있다. 또한, 병원 부설 '홀리스틱 힐링(Holistic Healing·전인치유)센터'(소장 최명숙)를 두고 있다. 최명숙 소장은 "라이프크리닉의 모든 치료과정은 환자 스스로 자발적인 치료를 목표로 의사를 비롯한 모든 치료사들이 환자의 치유과정을 도우며 방법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전남대병원 산부인과, 감염관리 최우수

전남대병원(병원장 김상형)은 지난 1일 감염관리실(실장 정숙인 교수) 주관으로 '제3회 감염관리 주간 행사'를 가졌다. (사진) 전대병원 6동 7층 강당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슬라이드 쇼 ▲감염관리 최우수 부서 수상과 병동 사례발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평가 '주제강연' ▲시상식 등이 이뤄졌다. 특히 감염관리 주간행사 작품 공모전에는 ▲표어 54점 ▲포스터 35점 ▲손 씻기 3행시 94점 등 총 183점이 응모되는 등 모두 40개 부서가 참여, 호응도가 높았다. 표어 공모에서는 중앙지원과의 '깨끗한 손 환자사랑, 잘 씻는 손 건강사랑' 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또 이날 행사에서는 '손 씻기 체험행사', '함께해요. 감염관리 골든벨 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각 부문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표어 부문=▲최우수상 중앙지원과 ▲우수상 8동 8층 진료행정과 영양실 ◇포스터 부문=▲최우수상 응급중환자실 ▲우수상 1동 중앙수술실·방사선종양학과·물리학과 ◇상행시 부문=▲최우수상 신생아중환자실 ▲우수상 김진욱 간호사·진단검사의학과 채철실 ◇환자 및 보호자 부문=▲우수상 정지혜·장조원 ◇손 씻기 왕=▲제갈영종(교수)·박상렬(전공과)·김승미(간호사)·박소현(간호사)·박경희(보건사)·김정순(간호조무사)·강대홍(원무직)·이영순(미화요원) ◇드레스 왕=▲최기영(인턴) ◇위생관리왕=▲정순애(라코) ◇최우수 부서=▲산부인과 ◇최우수 병동=▲7동 8층 감염내과병동

구강보건 작품 전시회

광주치과외과사회, 내일까지 금남로4가역

광주시 치과외과사회(회장 김낙현)가 4일 "제62회 치아의 날을 기념해 이날 오후부터 오는 6일까지 광주지하철 금남로 4가역에서 '구강 보건 주간 기념 제5회 백일장' 작품 전시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이는 작품은 지난 5월19일 광주지역 유치원과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 62회 구강 보건주간 기념 제5회 백일장'에 출품된 것들이다. 가운데 우수작 김재욱(그림·경양초 4년)군과 정술이(그림·서초병설유치원)양의 작품 등 총 28점이 전시되고 있다. 우수작으로 선정된 김군과 정양 등은 '치아의 날'인



김낙현 광주시 치과외과사회장 등 소속 회원들이 4일 오후 광주지하철 금남로4가역에서 '구강 보건 주간 기념 제5회 백일장' 작품 전시회 개막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오는 8일 기념식장에서 시상식을 하게 되며, 수상작 일부는 대한구강보건협회에서 주관하는 전국 포스터·표어·글짓기 대회에 참가하는 자격도 부여된다. 또한, 이날 작품 전시회에서는 치과의사회 회원들이 시

인들을 대상으로 한 구강 보건 캠페인을 벌이고 구강 세척액, 치약 칫솔 등 구강 보건용품 등을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금남로 4가역 전시회에 이어 7~9일까지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또 한번 개최된다. /최권일기자 cki@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3-1140, 5210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무등공인중개사
(02)383-5221
● 건물투자
● 모텔매매
● 상가·사무실(상무지구)
● 임야(농장)
● 공장·창고 및 기타

정우부동산
(02)675-4788
건물매매
토지매매
임야매매

첨단월세공인중개사
(02)972-4585
★ 급매매 ★
● 첨단 인근 비어있는 일반 주거지역 1000평 대세 대주택, 물류창고, 복식 실버시설
● 첨단중심상업지역 1100평 주·상 복합시설적합

국민공인중개사
(02)635-7939
건물
● 9억 8천 빌딩
● 7억 9천 빌딩 급매
● 5억 5천 원룸매매
● 12억 2천 빌딩부지
● 17억 5천 1층포 12칸 빌딩부지

알파공인중개사
(02)974-0229
상업용건물
● 매가: 80억 502억, 603억 원세 3,000만원(최고실권)
● 매가: 22억 506.5억, 605억 원세 1,200만원(양산동)
● 매가: 15억 506.5억, 603.5억 원세 700만원(쌍촌동)

특급상가 매매·임대
북구 용봉동 투룸 상가주택
● 대지72평, 연건평120평의 3층 코너 건물에 3억 8천만원이다.
● 보종금 7천만원, 월290만원이 나온다.
● 2004년 10월 완공이며, 연수기 수익률 11~13%에 예상된다.
● 세균제로 인한 감염률, 실 취득가격은 4955천원

BM 公認仲介士 事務所
부동산은 공인중개사이다.
800평 x 500만원 건축상실분
(02)288-4351